

승부처된 중추신경계 시장… K-제약, 혈뇌장벽 연구 활발

혈뇌장벽, CNS 치료제 핵심 난제
올릭스, BBB 셔틀 기술평가 체결
콘테라파마, 룬드벡과 개발 협력

에이비엘바이오에 이어 올릭스까지 중추신경계(CNS) 질환에 중점을 둔 경쟁에 가세하면서 플랫폼 기술력이 주목받고 있다. CNS 치료제 개발의 핵심 난제로 꼽히는 혈액뇌장벽(BBB) 연구 개발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올릭스는 지난 10일 스웨덴 소재 바이오 기업 키투브레인과 CNS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해 '전달체 기술 평가 및 기술 도입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혈액뇌장벽(BBB)을 통과해 CNS 질환을 표적하는 소형간섭RNA(siRNA)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양사는 키투브레인이 보유한 BBB 셔틀 기술과 올릭스의 CNS siRNA 후보물질을 결합한 접합체를 공동으로 개발한다. CNS 조직 내 약물 전달 효능과 기술적 적합성을 평가하는 공동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혈액뇌장벽은 유해 물질이 뇌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보호막이지만, CN



K-바이오가 혈액뇌장벽(BBB)을 중심으로 뇌질환 연구에 주력한다.

/제미니AI 생성 이미지

S 질환 치료제가 작용하는 기전에서는 핵심 장애물로 여겨진다.

키투브레인은 BBB를 구성하는 뇌 모세혈관 내피세포에 있는 트랜스페린 수용체(TfR)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소형 단일 도메인 항체(VHH)를 활용한 약물 수송 기전을 연구해 왔다.

이번 계약은 올릭스가 siRNA 기반 CNS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해 BBB 셔

틀 기술을 주도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전략의 일환이다.

이동기 올릭스 대표는 “CNS 전달 기술은 장기적인 검증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키투브레인과 같이 임상 적용 가능성이 높은 BBB 셔틀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에이비엘바이오도 BBB 투과 기술 ‘그랩바디-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RNA 전문 기업과 협업해 그랩바디-비와 소형간섭RNA(siRNA) 결합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 뇌는 물론, 근육, 심장, 폐 등 말초 조직까지 적용 가능한 새로운 약물 전달 시스템을 연구개발해 그랩바디-비 적응증을 확장할 계획이다.

또 최근 콜롬비아에서는 그랩바디-비에 활용되는 인슐린유사성장인자1수용체(IGF1R) 항체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 해당 특허는 2020년 6월 국제 출원된 것으로, 이번 특허 결정으로 2040년까지 그 권리가 보장된다.

IGF1R은 세포 성장 관련 신호전달 경로에 관여해 다양한 대사와 생리적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 IGF1R은 다른 조직에 비해 BBB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발현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에이비엘바이오는 이러한 IGF1R 특성을 응용해 그랩바디-비를 개발했다.

이상훈 에이비엘바이오 대표는 “그랩바디-비를 새로운 표적에 적용하고 모달리티를 확장하는 등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앞으로는 비만이나 근육 관련 질환 등에서 그랩바디-비 적응증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약 업계는 CNS 자체 신약

에 대한 연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광약품은 자회사 콘테라파마를 통해 CNS 전락과제 경쟁력을 확대한다. 자체 파이프라인으로는 파킨슨병 환자 대상 아침 무동증 치료제 ‘CP-012’ 임상1b상에 진입해 있다. 현재 긍정적인 톱라인 결과를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임상2상 진입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에는 콘테라파마와 글로벌 제약사 룬드벡의 의약품 연구개발 협력 계약 체결을 추진했다.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 및 RNA 개발 플랫폼 기술력을 입증한 셈이다.

큐라클은 알츠하이머병 신약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큐라클의 ‘CU71’은 뇌혈관내피 기능장애 차단제로, BBB를 안정화해 알츠하이머병 진행을 억제해 준다.

제약 업계 관계자는 “BBB 자체를 타깃으로 하거나 기존 약물 기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은 질환의 근본 원인에 대한 접근성이 바탕이 된 것”이라며 “기존 치료법에 대한 대안에서 한 차원 나아간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광동제약 ‘침향환’ 누적매출 1600억 돌파

재재구매율 99.8% 기록

광동제약은 ‘광동 침향환’이 2019년 출시 이후 2025년까지 누적매출 1600억 원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광동 침향환은 침향과 녹용을 주원료로 한 환 형태 프리미엄 제품이다. 2019년 첫 선을 보인 이후 꾸준한 품질 관리와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관련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광동 침향환의 누적판매량

은 약 2700만환(1박스당 30환 기준)에 달하며, 재재구매율은 99.8%를 기록해 높은 충성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성장 배경으로 광동제약은 원료 선별부터 제조 공정까지 전 과정에 걸친 철저한 품질 관리를 꼽았다. 광동 침향환은 침향(16%)과 녹용(10%)을 주원료로 산삼배양근, 아카시아별꽃, 복령, 숙지황, 뽕나무뿌리껍질 등 국내산 전통 원료 14가지를 배합해 제조된다.

/이세경 기자



지난 9일 서울 강남 소재 동국제약 본사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송준호 동국제약 대표(왼쪽에서 여섯 번째) 등 주요 관계자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국제약

동국제약, 지식재산처와 위조품 유통 대응

간담회 열고 제도적 협력방안 논의

동국제약은 지난 9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본사에서 지식재산처와 함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셀트리온24’의 위조품 유통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양측 관계자들은 국내 온라인과 해외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위조품 유통 실태와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위조품 문제는 소비자 안전과

브랜드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뤄 위조 상품 단속 및 유통 차단을 위한 제도적·실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송준호 동국제약 대표는 “지식재산처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최근 3일간의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온라인상의 위조품이 대다수 사라지는 등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며 “지식재산처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함께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롯데리아 1호점 오픈

지하 1층 48평 60석 규모
동남아 현지 파트너사 협업

롯데GRS의 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롯데리아가 지난 10일 싱가포르 주얼 창이 공항(Jewel Changi Airport)에 1호점을 오픈하며 동남아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한 사업 확장에 힘 쏟고 있다.

그간 롯데리아는 동남아시아국 진출 시 해당국의 수도 내 도심에 1호점을 오픈으로 브랜드 점점 확대를 통한 시장 확대 전략과 다르게 싱가포르의 입점 지역 및 상권 등의 특수성에 맞춘 전략에 기반해 1호점 입지를 검토했다.

이에 11일 공식 개점한 롯데리아 싱가포르 1호점은 싱가포르 창이 국제 공항과 연결된 전 세계 공항 교통 허브의 특수성과 쇼핑·엔터테인먼트 복합공간의 쇼핑몰인 주얼 창이 공항 내 B1층 약



10일 싱가포르 주얼 창이 공항 지하 1층에 위치한 롯데리아 싱가포르 1호점 그랜드 오픈식에서 롯데GRS 이원택 대표이사(오른쪽에서 3번째)와 카트리나그룹 알란 고 회장(오른쪽에서 4번째)이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GRS

48평 60석 규모로 1호점을 설계했다.

공식 개점에 앞서 10일 열린 그랜드 오픈식에는 롯데GRS 이원택 대표이사와 파트너사 카트리나 그룹 알란 고(Alan Goh) 회장 등 양사 주요 경영진과 주 싱가포르 한국 대사관 김준겸 참사

관 등이 참석해 오픈을 기념했다.

이날 롯데GRS 이원택 대표이사는 “싱가포르 1호점은 롯데GRS와 카트리나의 두 그룹이 한국과 싱가포르를 넘어 글로벌 외식업체로 발전하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셀트리온, CT-P55 임상3상 간소화 승인

개발 비용 절감하고 임상 기간 단축

셀트리온은 현지시간 9일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코센틱스(COSENTYX) 바이오시밀러 ‘CT-P55’의 글로벌 임상3상에서 등재 환자 수를 축소하는 임상시험계획(IND) 변경 승인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이번 IND 변경 승인을 통해 대상 환자를 기존 375명에서 153명으로 대폭 조정하게 됐다. 유럽 내 바이오시밀러 개발 효율화 정책에 따라 E

MA와 긴밀히 협의해 온 결과다.

셀트리온은 개발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환자 모집 수, 등재 환자 수를 줄여 전체 임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EMA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효능 동등성 입증에 위한 임상 3상 시험 면제와 간소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학적 근거가 충분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한해 임상 간소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임상 비용과 기간을 줄임으로써 개발 원가

역시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셀트리온은 판상형 건선 환자를 대상으로 오리지널 의약품 코센틱스와 CT-P55 간의 유효성, 안전성 및 동등성 입증을 위한 글로벌 임상 3상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코센틱스는 인터루킨(IL)-17A 억제제로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중등증-중증 판상 건선 등에 쓰이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다. 2025년 기준 글로벌 매출은 약 66억6800만 달러(9조3352억원)에 달하며, 물질특허는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2029년 1월, 2030년 7월 만료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